

“불교공부에 빠져 봅시다”

현대불교연구원 개원기념 특별강좌 눈길

1992년부터 15년 동안 꾸준히 불경을 읽고 번역 연구해온 불교 전공자들이 현대불교연구원(원장 김용환)을 개원하고 8월 23일부터 3개월간 이를 기념하는 특별 불교 강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현대불교연구원 이 문을 연 것은 지난 4월. 그동안 땀방울이 흩어져 활동해 왔던 부산대, 동아대, 위덕대 등의 불교전공자들이 한데 모였다. 부산대 철학과 교수가 불교전공자들을 지도해온 김용환 교수가 원장을, 이진오 부산대 교수, 이찬훈 인제대 교수, 이태승 위덕대 교수가 부원장을 맡았다. 구미속, 권서용, 김명우, 김준호, 송재근, 윤종갑, 정영식 등 젊은 불교전공자들도 뜻을 합쳤다.

| 날짜 | 주제 | 강사 |
|---------|---------------------------------|----------|
| 8월 23일 | 초기불교의 사상(초기불교) | 김용환(부산대) |
| 30일 | 해석과 새불교의 시대(소승과 대승) | 김준호(부산대) |
| 9월 6일 | 좁은 0인가 아니면 넓은 1인가(중관사상) | 윤종갑(부산대) |
| 13일 | 우리의 마음 분석하기(우식사상) | 김명우(동아대) |
| 20일 | 우리는 학자위의 사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불교인식론) | 권서용(부산대) |
| 27일 | 티벳불교와 달라이라마(티벳불교) | 이태승(위덕대) |
| 10월 11일 | 종파불교의 전개와 발전(중국불교) | 원필성(위덕대) |
| 18일 | 화엄사상(화엄) | 이찬훈(인제대) |
| 25일 | 선의 허구와 진실(선사상) | 정영식(부산대) |
| 11월 1일 | 나무 아미타불의 가르침(정토사상) | 송재근(장원대) |
| 18일 | 원효의 학문화 미학(한국불교) | 이진오(부산대) |
| 15일 | 마음다스리기와 건강(영양불교) | 조순희(위덕대) |

불교전공자 12명 3개월간 강좌 경전 현대적 언어로 새롭게 해석 30분 정도 문답토론 형식도 진행

불경 공부 모임이 해를 거듭하면서 비판 불교연구회, 새불교연구회를 거쳐 현대불교연구원으로 자리를 잡기에 이르렀다.

현대불교연구원은 오랜 세월 동안 공부 모임을 이어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 앞에 선 젊은 학자들이 의기투합한 결과물이다.

현재 현대불교연구원 운영위원들인 40대 전후의 젊은 학자들은 연구원의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월 회비를 내고 강의는 아예 무료로 진행할 정도로 열정이

뜨겁다.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특별 불교강좌는 현대불교연구원 이 여는 첫 대중 강좌다. 이번 강좌는 김용환 부산대 철학과 교수의 초기불교의 사상 시작으로 소승과 대승, 중관사상, 유식사상, 불교인식론, 티베트불교, 중국불교, 화엄사상, 선사상, 정토사상, 한국불교, 응용불교 등 광범위하게 불교사상의 기초부터 풀어내는 강좌로 마련된다. 12명의 불교학 전공자들이 각각의 전공을 짚고 참신한 시각으로 풀어내는 1시간 30분의 강의에 이어 30분 정도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문답과 토론으로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개원이후 매주 월요일 ‘불교인식론 세미나’, 매주 1, 3주 목요일 계몽산 벼수선원장 묘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등을 꾸준히 열어온 현대불교연구원은 앞으로도 10명 남짓의 소규모 공부 모임을 꾸준히 열어 보다 심도 깊은 불교를 대중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포부다. 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예술이 함께 어우러진 문화답사기행과 각 신행단체 법회 현황파악 및 법회 프로그램 개발, 법사 연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051)581-632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고정관념 비워내면 지혜 드러나”

반산 스님, 금강경 강의 회향 공개 법회



부산 영축선원(선원장 반산 스님)이 8월 10일 영축선원 법당에서 부산불교방송을

통해 진행해온 금강경 ‘경전 공부’ 강의를 회향하며 공개 법회를 열었다(사진).

5월 12일부터 8월 8일까지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된 금강경 ‘경전 공부’ 강의는 그동안 서울에서 제작해온 ‘경전 공부’ 강의를 부산불교방송에서 처음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이날 회향법회에는 청취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방송 형태로 진행됐다. 오명식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을 비롯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 그동안 강의에 힘써온 반산 스

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오명식 총괄 국장은 “반산 스님의 금강경 강의에 대한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방송교재로 반산 스님께서 직접 쓰신 <재미있는 금강경 강의> 교재가 불교도서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라갈 정도였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반산 스님은 “생각을 비우면 진리가 보인다”는 주제 법문을 통해 “금강경의 핵심은 생각을 비운 그 자리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비워내면 저절로 지혜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불교방송을 통해 금강경 강의를 진행해 온 반산 스님은 2년 동안 법회경, 선요, 초발심자경문 등을 방송을 통해 강의해오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HipHop 愛 빠지다’ 공연 불국토도량



(재)불국토도량은 8월 11일 부산대학교 지하철거 야외공연장에서 2006 청소년 문화존 ‘HipHop 愛 빠지다’ 거리 공연을 펼쳤다(사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부산광역시 공동 주최한 이번 공연은 부산의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재미난 복수’와 연대해서 진행했다.

합창댄스와 밴드 공연, 티셔츠 페인팅, 프리마켓 소리 공작소, 합합스크라치와 같은 부대행사와 더불어, 비보이 퍼포먼스, 밴드공연, MC 공연 등 무대행사가 이뤄져 호응을 얻었다.

50여 명의 청소년이 직접 만들고,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합창공연인 거리 공연은 부산대학교 지하철거 야외공연장에서 매일 한차례씩 펼쳐질 예정이다.(051)868-0750

천미희 기자

한희불교복지대 호스피스 카운슬링 과정 수강생 모집

한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은 9월 12일 오후 2시 호스피스 과정을 개강한다.

매주 화, 금 주 2회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호스피스 과정에서는 임종간호와 영적 간호, 치매환자 간호, 건강과 질병, 병력이론 및 마사지, 심신안완요법 등 간병방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은 물론 가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함께 교육한다.

특히 한희불교복지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은 중년노인병원, 부산의료원, 효림병원, 보훈병원, 인창노인요양원 등에서 목욕 및 간병 봉사활동을 펼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051)203-9436

천미희 기자

해변서 거리상담 등 실시

부산시 청소년센터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2006년 해변 아웃리치’를 실시했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이벤트 및 홍보활동, 위기개입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한편 서부노인화대방센터도 8월 9일부터 10일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노인 학대지킴이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해변 아웃리치 행사를 실시했다.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비지땀 흘려도 마음은 상쾌

부산여성불자회

유난히 더웠던 울어름, 삼나무 편백 등 사철 푸른 나무들이 우거진 도심 속의 시민공원인 초읍동의 어린이대공원은 물려드는 인파로 북새통을 이뤘다.

사람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흔적이 남기 마련. 어린이대공원을 다녀간 사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다.

늦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던 8월 17일 부산여성불자회 회원 30여명은 쓰레

곳의 쓰레기 줍기 시작하자 금방 비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매미소리를 법문 삼아 들으며 부처님 발음을 읽던 눈으로는 쓰레기를 찾으며 회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즐겁다.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공기 맑은 공원에서 운동도 하고 청소도 하니깐 보람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108배를 하면서 땀을 흘려 흘리고 났을 때 상쾌해지는 기분입니다.”



부산여성불자회가 8월 17일 어린이대공원에서 쓰레기줍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심코 버렸을 담배꽂이가 가장 많네요.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하는 걸심을 새삼 하게 되네요.”

“너무 구석진 곳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땅에 묻혀 치우기도 힘들네

정기법회 대신 어린이대공원 자연보호 나서

“쓰레기 치우며 마음 속 삼독심도 버렸어요”

기를 즐기 위한 긴 집계와 쓰레기를 담을 마대 자루를 들고 어린이대공원으로 출동했다. 한여름 내 푸른 바람과 그늘을 드리워준 자연에 감사하며 사람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말끔히 청소하기 위해 서 법회 대신 봉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창립이후 13년 동안 단 한번도 월례법회를 빼뜨리지 않은 부산여성불자회지만 매년 8월이면 정기 법회를 쉬는 대신, 사경, 독경 등 개인수행과 함께 임원 워크숍을 열어왔다. 올해도 개인수행으로 자비도량참법 21독을 실천하기로 약속하고 정기법회를 쉬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난히 더웠던 울어름 공원 이용 인파가 더 몰리고 자연 환경이 훼손도 더 심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쳐 정기법회를 쉬고 대신 야외법회를 겸해 어린이대공원 자연보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삼독심도 그와 같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법회 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줍는 회원들을 향해 공원을 오가던 사람들이 인사를 건넨다. ‘불자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니 고맙다’고. 그리 대단치 않은 일에 불교 전체의 이미지가 좋아지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

한편 이날 자연 보호 활동과 함께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휴대용 장바구니를 나눠주기도 했으며 자연보호 활동이 끝난 뒤 간담회를 갖고 향후 활동 방향과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법안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사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 [금물] 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9

전화 주시면 회향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베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프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 상품호칭 | 제작방법 | 재질(성분) | 원단가공상태 | 원사생산 | 판매가격(25%할인가) |
|------|------|-------------|-----------|--------|--------------|
| 안동포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천연가공 경복안동 | 경북안동 | 3,800,000 |
| 1호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천연가공 경복안동 | 중국(산둥) | 1,250,000 |
| 2호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경남 남해 | 중국(사천) | 835,000 |
| 3호 | 수제직 | 대마(삼베) 100% | 중국 | 중국 | 475,000 |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유류 시험 연구원
 O마크 획득



세시풍속 <歲時風俗>

윤달(潤月)은 제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더므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엔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속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대,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성이 얼마남지 않았던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만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성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진다.